

#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Block Friends on Mobile Messengers

## 모바일 메신저상에서 친구 차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Myung-Seong Yim<sup>1</sup>

임명성<sup>1</sup>

<sup>1</sup> Associate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ahmyook University, Korea,  
[msyim@syu.ac.kr](mailto:msyim@syu.ac.kr)

**Abstract:** The ultimat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block friends on mobile messengers. To achieve this purpose, we suggest the proposed model consisting of privacy concerns, lack of social skills, loneliness, and messenger usefulness affecting intention to block messenger friends. To test hypotheses, 140 data were used to identify relationships among latent variables mentioned above. For the empirical analysis, a generalized structured component analysis (GSCA) under variance-ba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B-SEM) was used. We found that privacy concerns and lonelines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block mobile messenger friends. On the other hand, lack of social skills and messenger usefulness do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intention to block friends. However, the lack of social skill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loneliness. This result manifests that users with high privacy concerns are possible to block unintimate mobile messenger friends. In addition, it can be shown that people who feel a lot of loneliness are more likely to block friends. This result shows that mobile users who feel more lonely want to focus on the quality of a social relationship rather than the quantity of it.

**Keywords:** Intention to Block, Lack of Social Skills, Loneliness, Privacy Concerns, Communication

**요약:** 본 연구는 모바일 메신저 사용자가 친구를 차단하는 원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친구 차단 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프라이버시 관심, 사회적 기술 부족, 외로움, 메신저 유용성은 독립변수로 구성된 연구모형을 제안했다. 연구 모형 분석 결과, 프라이버시 관심과 외로움은 친구차단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기술 부족과 메신저 유용성은 친구차단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은 친근하지 않은 친구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도 친구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관계의 양보다는 관계의 질에 집중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핵심어:** 차단의도, 사회적 기술 부족, 외로움, 프라이버시 관심, 의사소통

Received: October 23, 2022; 1<sup>st</sup> Review Result: December 03, 2022; 2<sup>nd</sup> Review Result: January 07, 2023  
Accepted: January 31, 2023

## 1. 서론

인터넷이라는 소통 환경은 CMC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상호작용 방법에 변화를 유발했다. CMC(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란 컴퓨터 기술에 기반을 둔 모든 의사소통 채널을 말하며, 대칭 그리고 비대칭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한다[1]. Sheldon(2008)은 CMC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인간 의사소통과 미디어 기반 의사소통 간의 전통적 경계를 와해시켰다고 평가했다[2].

사회적 행동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은 기존 관계 유지, 로맨틱 관계 형성, 새로운 온라인 우정 형성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3]. Birnholtz(2010)는 청년들이 메신저를 사용하고, 사용을 지속하는 이유는 온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그들과 상호작용하고, 기존에 형성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은 대면 소통과 상호작용 만남이 어려울 경우에 보완제로 사용되기도 한다[4].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유지되는 관계는 유동적이다[3]. 온라인 상의 우정은 SNSs(Social Networking Services)상에서 형성되기도 하지만 해소(解消)되기도 한다[3]. 그래서, ‘친구 삭제’(unfriend or unfollow)는 SNSs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능 중 하나이다. Anderson and Jiang[5]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4%가 소셜 미디어 상에서 때때로 혹은 자주 친구 삭제 기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dden(2012)의 조사에서도, Meta 사용자 중에 63%는 2011년 한 해 동안 자신의 친구목록에서 친구를 삭제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09년보다 9%p 증가), 응답자 중 58%는 자신의 SNSs에서 친구를 차단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Madden et al.(2013)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만 12-17세) 중 74%는 자신의 친구목록에서 친구를 차단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처럼 온라인 환경에서 관계의 형성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 관계의 종료도 자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관계 해소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3]. 물론, 가상 공간에서 SNSs 사용자의 친구삭제 행위에 관한 연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8], 모바일 환경에서 친구를 삭제 혹은 숨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연구는 거의 부재하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 관계에 있어서 온·오프라인 경계 붕괴와 친구 삭제 행동에 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8]. 친구 삭제 행동은 SNSs 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용자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 특히, Sibona[9]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친구 차단과 관련된 연구는 SNSs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모바일 메신저 환경에서 친구 차단 행동을 설명해주는 연구는 시행되지 않았다.

둘째, 온라인 환경에서 친구 관계 해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8]. 선행연구에서 친구 관계 해소는 주로 친한 친구, 연인 관계, 부부관계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연구되어 왔다[8]. 하지만, 온라인 상의 대인관계는 관계의 강도와 무관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친구 차단 행동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온라인 환경은 SNSs, 메신저, 이메일 등 기반 환경이 다르다. 따라서, 모바일 환경에 맞는 친구 관계 해소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친구 요청과 친구 차단은 온라인 상에서 대인 관계형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대부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관계 해소에 관한 연구는 실무적 가치가 충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관계 해소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모바일 메신저 사용자가 친구를 차단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 2. 문헌연구 및 가설

### 2.1 친구차단

친구 차단(unfriend)이라는 단어는 2009년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에 올해의 단어로 소개되었다[9].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친구 차단은 Meta와 같은 SNS에 등록된 친구를 제거하는 행동을 말하는 동사이다[9].

선행연구에서 친구 차단은 친구 삭제(Delete), 차단(Block(ing)), 친구해제(Unfriend(ing)), 관계 종료(end friendships), 관계 단절(dysconnectivity), 깨진 고리(broken ties), 관계 해소(dissolving), 관계 중단(terminated) 등의 용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친구 삭제는 일방적 행동이며, 삭제 대상의 허락도 필요없다[9]. 또한,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삭제되었다는 별도의 알림도 받지 않는다[9].

친구차단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10]. 예를 들어, 관심이 없는 대상일 경우, 중요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를 포스팅하는 경우에 발생한다[10].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타인의 포스팅 행동 때문에 친구 삭제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9]. 이처럼, 관계 단절에 대한 개념과 연구는 지속되어 왔지만, 모바일 메신저 환경에서 친구 차단 행동을 설명해주는 연구는 부재하다.

### 2.2 프라이버시 관심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란 개인, 집단 그리고 기관이 자신에 관한 어떠한 정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외부로 제공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1]. 본 정의가 매우 직관적이고 간단해 보여도 실생활에서 그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프라이버시 관심(privacy concerns)은 정보 프라이버시 정황내에서 논의되는 공정함(fairness)에 관한 개인의 주관적 관점을 말한다[11].

프라이버시의 공정함은 상황과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COVID19가 창궐했을 때 질병관리청은 방역이라는 명목으로 개인 및 사업체의 대략적 주소와 며칠동안의 동선을 인터넷 상에 공개했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당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방역 우선주의라는 명목하에 프라이버시 침해가 강하게 주장할 수 없었다. 이와는 다르게 메신저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는 성격이 다르다. 방역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강제적이었다면 메신저 상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는 개인의 선택이다. 자신이 직접 프로필 사진을 올리거나 변경하고, 개인적 메시지도 자신의 의지에 의해 기록된다. 물론 선택에 의한 개인정보 공개라고 해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를 아는 모두가 내 사진과 멘트를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다. 특히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평소에 연락을 자주하지 않았거나 상하관계 등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하게 모바일 친구관계를 유지해야 할 경우 멀티프로필(사람에 따라 다른 프로필 사진을 보여지게 만드는 카카오톡의 기능)을 사용하지만, 불편하거나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상대방은 친구 목록에서 차단하고, 프로필 사진도 볼 수 없게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H1. 프라이버시 관심은 차단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2.3 사회적 기술 부족

대인간 의사소통 동기는 모바일 폰 사용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12]. 또한, 의사소통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모바일 폰을 사용하기도 한다[12]. 온라인 상에서 형성되는 관계는 대면 접촉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대면 접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크지 않다[2]. Scealy et al.(2002)의 연구에 따르면, 대면 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CMC를 통한 의사소통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3].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면 소통 회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CMC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따라서, 사회적 관계 형성에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나 사회적 관계 기술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위험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할 가능성이 높다[2]. 하지만, 사회적 기술의 부족이나 온라인 관계의 집중이 개인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켜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관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사회적 위험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비대면 활동이 대면활동의 완전한 대체제는 아니다. Corona Blue도 지난 2년 동안 대면 관계의 축소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 증상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술의 부족은 외로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 Wittenberg and Reis(1986)는 개인의 사회적 기술과 자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개인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14]. Jin and Park(2012)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소통이 사회적 기술 결핍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규명했다[15]. 또한, 오프라인 관계보다는 온라인 관계에 지나치게 집중한 사람들은 관계의 질과 깊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을 수 있다. 쉽게 형성된 관계는 쉽게 단절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H2. 사회적 기술의 부족은 차단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3. 사회적 기술의 부족은 외로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2.4 외로움

Leung(2002)의 연구에 따르면, PC 메신저의 사용 수준은 외로움(loneliness)과 관련이 없으나, 메신저 사용 수준은 자기표출(self-disclosure)의 차원, 방향성(valence, positive-negative), 정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메신저의 사용은 자기표출의 의도 및 깊이와 깊게 연관된다[16]. 자기 표출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17]. 사회적 침투 이론(SPT, Social Penetration Theory)에 따르면, 대인 관계는 친근감과 결속력을 향상시키는 상호 간의 자기 표출과정을 통해 발전한다[18]. 따라서, 자기 표출은 관계를 개발 및 유지하는 데 핵심인 대인 간 의사소통의 한 형태이다[17].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메신저 상에서 자기 표출에 있어서 더 정직하지 못하고, 더 부정적이며, 자신을 소극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16]. 반대로, 외로움을 덜 느끼는 사람들은 적절히, 정직하게, 긍정적으로, 정확하게 자신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따라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바일 상에서 넓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자주 표출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H4. 외로움은 차단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2.5 메신저 유용성

심리적 관점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디어를 선택한다[19]. UGT(uses and gratifications theory)에 따르면, 의사소통 욕구는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요인과 상호작용한다[1]. Papacharissi and Rubin(2000)은 대면 의사소통(FtF, Face-to-Face Communication)과 비대면 의사소통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주장했다[1]. 비대면 의사소통을 위해서 별도의 도구가 필요하다[1]. 모바일 메신저는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정보 교환이 용이하며, 저렴하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상호작용 도구이다[4]. 비대면 의사소통은 사용자에게 거대한 정보 자원을 제공한다[1]. 비대면 소통(기술)을 통해 인간은 정보 그리고 상호작용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1].

모바일 메신저는 일상적인 정보의 교환과 인간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는 데 핵심이다[4]. 또한, 타인과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고 친구들과의 우정도 다질 수 있다[4]. 반면에 잦은 인터넷 사용은 가족 구성원 간의 대면 의사소통 빈도를 감소시키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축소시키고, 우울감과 외로움을 높일 수 있다[20].

H5. 메신저 유용성은 차단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6. 메신저 유용성은 외로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기부여(motivation)란 통상적으로 인간의 행동의 활력(energization)과 방향성(direction)으로 정의된다[21]. 동기부여 받은 행동은 내적 혹은 외적 단서에 의해 동기, 가치관, 관심의 활성화를 포함하여, 활성화된 동기, 가치관, 관심은 잠재적으로 만족할 만한 목표, 결과, 최종 상태로 유도한다[21].

접근 동기는 긍정적 자극과 관련된 행동을 활성화 혹은 방향성을 제공한다[21]. 접근 기반 동기는 목표 지향적 욕구 증진 행동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22]. 반면, 회피 동기는 부정적 자극과 관련된 행동의 방향성 혹은 활성화를 포괄한다[21]. 회피 동기는 위협과 연관된 정황적 요인들에 의해 활성화된다[22]. 회피 동기는 공포와 두려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때 오랫동안 이론화되어 왔다[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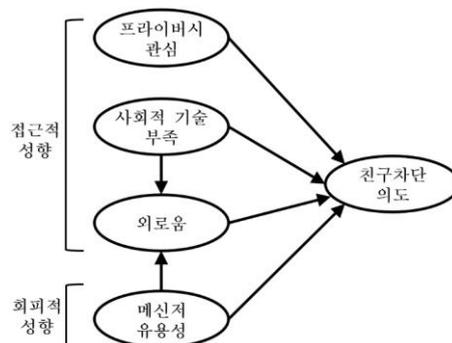
인간의 행동은 긍정성 결과에 접근 욕망(desire to approach)과 부정적 결과 회피 욕망(desire to avoid) 등 두 가지 근본적 동기로 구성된다[23]. 접근 동기(approach motivation)는 보상, 바람직한 최종 상태에 초점을 맞춘 동기와 목표를 가진다[24]. 회피 동기(avoidance motivation)는 처벌, 원치 않는 최종 상태에 초점을 맞춘 동기와 목표를 가진다[24]. 동기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인간이 사회적 보상과 사회적 위협을 동시에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해하는 데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24]. 이 두 가지 동기는 우울감을 포함하는 정신병리학의 범주에 포함된다[23].

선행연구의 문제는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 회피 과정은 동기 프로세스와 관련된 문헌에서 주목받지 못했다[23]. Gable(2008)도 선행연구에서 회피 동기와 목표가 규제 효과가 낮고, 열악한 성과와 자주 연관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인 관계는 보상과 위협이 동시에 제공되기 때문에, 접근 차원과 회피 차원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24]. 하지만, 많은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는 보상을 포함하는 프로세스와 처벌을 회피하는 프로세스를 동시에 검증하는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24]. 예를 들어, Elliot et al.(2006)은 우정 접근 목표가 외로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관계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결과를 제시한 반면,

우정 회피 목표는 외로움과 관계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25]. 이러한 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보상의 존재를 위협의 부재로 인식하거나, 위협의 존재를 보상의 부재로 인식했기 때문이다[24]. 따라서, 연구자는 접근과 회피는 상호 독립적이며, 두 가지 동기의 유형에 의해 인간의 행동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24]. Jakubiak et al.(2021)도 두 가지 동기가 상호 배타적이지 아니며, 인간은 두 가지 동기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주장했다[26].

Howard(2019)는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가 모두 업무 현장과 구성원의 안녕(well-being)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27]. Gable and Impett(2012)는 인간은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친밀한 관계는 보상 접근과 위협 회피를 동시에 고려해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8]. Trew(2011)는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가 동시에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것을 실증 규명했다[23].

하지만, 접근과 회피적 사회적 동기가 어떻게 외로움, 사회적 두려움,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 지속적 사회적 관계상에서 감정적 안녕과 같은 대인 관계 성과(interpersonal outcomes)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29]. 대인 관계 성과는 바람직한 요소(예. 사랑)뿐만 아니라 불편한 요소(예. 갈등)를 모두 포함한다[29].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동안 관심받지 못했던 차단 의도라는 부정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인간의 사회적 동기인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이를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으로 제안하였다. 본 모형이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를 모두 반영한 통합적 모형을 제시했다는 점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부정적 결과인 차단 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변수를 탐색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행위 의도(behavioral intention)란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수행할 준비(readiness)가 되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림 1] 연구 모형

[Fig. 1] Research Model

### 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3.1 설문 개발 및 데이터 수집

Auter(2007)에 따르면, 청년층은 대인 간 의사소통을 위해 모바일폰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한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 대학에 소속된 대학생을 본 연구의 응답 대상으로 선택했다. 대학생은 과제와 팀 프로젝트를 위해서 많은 학생과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다른 대상보다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응답자라고 판단된다.

친구 차단 의도는 Verswijvel et al.(2019)의 연구에서 6개의 항목을 차용했다[30]. 프라이버시 관심은 Malhotra et al.(2004)의 연구에서 4개의 항목을 차용했다[11]. 사회적 기술 부족은 Wittenberg and Reis(1986)의 연구에서 3개의 항목을 차용했다[14]. 외로움은 Russell(1996)의 연구에서 2개의 항목을 차용했다[31]. 메신저 유용성은 Davis and Davis(1989)의 연구에서 6개의 항목을 차용했다[32]. 모든 측정항목은 본 연구의 정황에 맞게 수정한 후 설문에 포함되었다.

설문 참여의 자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Naver form 기반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총 5개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본 설문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 참여를 독려했다. 물론 설문의 참여는 자율이며, 수업과 관련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총 140명의 학생이 본 설문에 응답했다. 설문은 중복 응답(ip 주소 중복 확인)이나 무응답이 있을 경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도록 설정하여 무응답이 없도록 했다. 설문 응답을 위해서 Likert 7 point-scale을 사용했다. 1점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7점은 전적으로 동의함을 나타낸다.

G\*Power v3.1.9.7 for Windows를 통해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표본 수를 산출했다. 선형 다변량 회귀분석, 양측검정, 0.05 유의수준, 4개의 예측 변수를 기본으로 최소 89개 이상의 표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140개의 표본을 사용하였기에 제안 모형을 검정하는데 필요한 최소 표본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기초 통계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 등을 위해서 Jamovi for Windows v2.3.18을 사용했다. 제안 모형의 분석은 GSCA Pro 1.1 for Windows v1.1.8을 사용했다. 응답자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 특성 분석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Respondents

구분	세부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61	43.57%
	여성	79	56.43%
	합계	140	100%
연령	평균	만 21.3세	최소: 만 17세, 최대: 만 27세
메신저에 등록된 친구 수	평균	359명	최소: 3명, 최대: 3,200명
숨김 친구 수	평균	28.4명	최소: 0명, 최대: 654명
차단 친구 수	평균	25.3명	최소: 0명, 최대: 500명

### 3.2 탐색적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속에 숨겨진 잠재적 요인 구조를 식별하기 위해서 요인 분석을 수행했다. EFA(Exploratory Factor Analysis, 탐색적 요인 분석)는 요인 수가 선형적으로 식별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자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인 요인을 탐색(exploratory)하기 위해서 사용했다[33].

연구자는 EFA를 수행하기 전에 수집된 자료가 본 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확인해야 한다[34]. 데이터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KMO MSA와 BTS를 사용한다[34]. KMO는 0.6 이상의 값을 가질 경우 EFA를 위한 적합한 데이터라고 해석한다. BTS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p < 0.05$ ) 수집된 데이터가 EFA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행렬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KMO는 0.764이며, BTS는  $p < 0.001$ 이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로 EFA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EFA를 위해서 수집된 데이터의 정규성 여부에서 자유로운 PAF(Principal Axis Factoring) 추출법을 사용했고, 요인 회전은 사각회전 기법 중에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하고 있는 사각회전 기법 중에 Oblimin을 사용했다.

요인 수의 결정 기법은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PA(Parallel Analysis)를 사용했고, 요인적재값 기준은 0.5이상, 교차요인 적재값은 0.4이하로 설정했다. EFA 결과는 [표 2]와 같이 5개의 유효한 요인을 도출했다.

[표 2]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Table 2]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잠재변수	측정항목	Factor					MSA
		1	2	3	4	5	
메신저 유용성	a3	0.148	<b>0.533</b>	0.145	-0.218	-0.227	0.710
	a6	0.088	<b>0.589</b>	-0.067	-0.021	0.124	0.733
	a8	0.064	<b>0.753</b>	-0.119	0.064	0.041	0.847
	a10	-0.018	<b>0.796</b>	0.153	-0.103	-0.043	0.629
	a11	-0.081	<b>0.848</b>	-0.071	0.060	-0.039	0.638
	a12	-0.063	<b>0.667</b>	-0.027	0.089	0.106	0.741
사회적 기술 부족	a13	-0.011	-0.071	0.019	0.035	<b>0.601</b>	0.666
	a14	-0.010	-0.064	0.011	-0.061	<b>0.768</b>	0.575
	a15	0.046	0.099	0.064	0.003	<b>0.779</b>	0.694
프라이버시 관심	a34	0.037	-0.051	<b>0.576</b>	0.107	-0.008	0.845
	a35	0.019	0.095	<b>0.779</b>	0.166	0.081	0.871
	a36	-0.030	-0.064	<b>0.934</b>	-0.026	-0.030	0.800
	a37	0.065	0.000	<b>0.854</b>	0.000	0.067	0.814
외로움	a40	-0.007	0.036	0.053	<b>0.899</b>	0.013	0.709
	a41	0.083	-0.039	0.079	<b>0.788</b>	-0.031	0.784
차단 의도	a42	<b>0.655</b>	-0.030	0.104	0.166	-0.039	0.864
	a47	<b>0.869</b>	0.025	0.066	-0.144	0.031	0.741
	a48	<b>0.796</b>	-0.052	-0.011	-0.055	-0.005	0.697
	a49	<b>0.570</b>	-0.027	0.041	0.127	0.000	0.88
	a50	<b>0.654</b>	-0.024	0.049	0.164	0.033	0.876
	a51	<b>0.684</b>	0.058	-0.186	0.137	0.025	0.780
SS Loadings		3.22	3.05	2.83	1.81	1.7	
% of Variance		15.33	14.5	13.48	8.63	8.1	
Cumulative %		15.3	29.8	43.3	51.9	60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MSA)						0.764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BTS)					$\chi^2$	1655	
					degree of freedom	210	
					p value	<.001	

### 3.3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제안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했다. 본 기법에 대한 접근법은 Anderson and Gerbing(1988)이 제시한 2단계 접근법을 사용했다[33]. 첫 단계로 측정모형 분석(measurement model)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했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을 통해 가설을 검증했다.

#### 3.3.1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기법을 통해 잠재변수의 신뢰성을 평가했다. 신뢰성 평가는 내적 일관성으로 신뢰성을 평가하는 Cronbach's alpha와 Dillon-Goldstein's rho(관측변수가

외생 적재값(outer loadings)의 변동을 허용)를 사용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두 값 모두 0.7 이상되어야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35]. [표 3]을 보면 최소 Cronbach's alpha는 0.759로 나타났으며, rho는 0.862로 나타났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with Reliabilities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차단의도	프라이버시 관심	사회적 기술부족	외로움	메신저 유용성
차단의도	<b>0.780</b>	0.441	0.235	0.413	0.039
프라이버시 관심	0.403	<b>0.872</b>	0.369	0.513	0.068
사회적 기술 부족	0.196	0.309	<b>0.822</b>	0.221	0.068
외로움	0.368	0.452	0.180	<b>0.942</b>	0.027
유용성	0.025	-0.061	-0.049	-0.019	<b>0.757</b>
<b>R<sup>2</sup></b>	<b>0.212</b>	-	-	<b>0.033</b>	-
<b>VIF(Variance Inflation Factor)</b>	-	<b>1.350</b>	<b>1.109</b>	<b>1.260</b>	<b>1.005</b>
<b>AVE(Average Variance Extracted)</b>	<b>0.609</b>	<b>0.760</b>	<b>0.676</b>	<b>0.888</b>	<b>0.573</b>
<b>Cronbach's Alpha</b>	<b>0.871</b>	<b>0.892</b>	<b>0.759</b>	<b>0.874</b>	<b>0.848</b>
<b>Dillon-Goldstein's rho</b>	<b>0.903</b>	<b>0.926</b>	<b>0.862</b>	<b>0.941</b>	<b>0.888</b>

Note. 대각선 값은 AVE의 제곱근 값을 의미함 / 대각선 위의 값은 HTMT ratio of correlations를 나타냄

### 3.3.2 타당성 분석

타당성은 집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분석했다. [표 3]과 같이 AVE값이 0.5보다 클 경우 집중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36].

판별 타당성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분석했다. 첫째, AVE값과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이다[37]. 본 방법에 따르면, 각 AVE값은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 계수보다 커야 판별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본다[37]. [표 3]에 대각선 값은 AVE의 제곱근값이다. 반면 대각선 아래의 값은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 계수이다. 분석 결과, 모든 AVE의 제곱근 값이 상관관계 계수보다 크게 나타났다. 판별 타당성을 평가하는 또 다른 기법으로 HTMT(heterotrait-monotrait)를 분석했다[38]. 본 기법은 Fornell and Larcker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다고 평가된다. [표 3]의 대각선 위의 값은 HTMT 값이다. 엄격한 기준에 따르면 본 값은 0.85 미만이어야 한다[39]. [표 3]을 보면 최댓값이 0.513으로 HTMT 판별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3.4 구조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 분석을 위해서 SEM(Structural Equation Modelling)기법을 사용했다. SEM의 목적은 이론 검증, 개발, 예측으로 나뉜다[33].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SEM 사용 목적에 따라서 추정 방법과 기저 모형의 선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40]. 공통 요인 모델(common factor model)과 연관된 완전 정보 추정 접근법(full-information estimation approach)은 이론의 검증과 개발에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다[33]. 본 기법은 이론 지향적이며, 탐색적 분석에서 확인적 분석으로 전환을 중시한다[33]. 반면, 주성분 모형과 연관된 PLS(Partial Least Squares) 추정법은 예측과 응용에 있어서 상대적 강점이 있다[33]. 본 기법은 이론적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과성-예측 분석을 중시한다[33]. 본 연구는 모바일 메신저 사용자의 친구 차단 의도를 탐구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 관한 선행연구,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친구 차단을

설명할 수 있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친구 차단 의도와 행위를 설명하는 것을 시도하는 연구인 만큼 주성분 모형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으로 검정했다. 검정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가설검정 결과

[Table 4] Results of Hypotheses Test

가설경로	추정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t 값	p 값
<b>H1. 프라이버시 관심→차단의도</b>	<b>0.28</b>	<b>0.092</b>	<b>0.106</b>	<b>0.466</b>	<b>3.043</b>	<b>0.002</b>
H2. 사회적 기술 부족→차단의도	0.07	0.083	-0.095	0.225	0.843	0.399
<b>H3. 사회적 기술 부족→외로움</b>	<b>0.18</b>	<b>0.089</b>	<b>0.019</b>	<b>0.349</b>	<b>2.022</b>	<b>0.043</b>
<b>H4. 외로움→차단의도</b>	<b>0.23</b>	<b>0.103</b>	<b>0.016</b>	<b>0.418</b>	<b>2.233</b>	<b>0.026</b>
H5. 메신저 유용성→차단의도	0.05	0.089	-0.128	0.215	0.562	0.574
H6. 메신저 유용성→외로움	-0.011	0.095	-0.203	0.174	-0.116	0.908

가설 검정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프라이버시 관심은 친구 차단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stimate=0.28, t=3.043, p=0.002).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 타인에게 자신이 노출되는 것이 불편하다고 자주 느끼는 사용자는 자신이 보여지는 것이 불편하게 생각되는 메신저 친구를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멀티프로필 기능으로 메신저 친구마다 다른 프로필 사진과 멘트가 보여질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으나, 자신이 보여지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끼거나, 프로필 자체를 다르게 보여주는 것에 신경쓰기 싫을 만큼 불편한 친구는 차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술 부족은 친구 차단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stimate=0.07, t=0.843, p=0.399).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사회적 기술 부족이 친구 차단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단할 친구의 수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친구 차단 행위에 무관심할 가능성이 높아져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스스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단지 주변인이 자신의 가치나 능력 등을 몰라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즉 자신은 충분히 주변사람들과 친분이 있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사회적 기술 부족은 외로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stimate=0.18, t=2.022, p=0.043).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미래의 사회적 접촉에 대한 기대와 발생 가능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은 외로움을 최소화 혹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35]. 또한, 사회적 역량은 외로움을 감소시키기도 한다[35]. 반대로, 사회적 역량과 기술이 부족한 경우 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립감, 소외감, 사회적으로 배제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외로움은 친구 차단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stimate=0.23, t=2.233, p=0.026). 따라서, 가설 4도 채택되었다. Haugen et al.(2013)은 외로움이 실제 사회적 관계의 수(폭)와 관련되기 보다는 관계의 질과 관계의 인지된 의미와 더 관련이 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관계의 폭 보다는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며, 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이 깊기

때문에 차단 대상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메신저 유용성은 친구 차단 의도( $estimate=0.05$ ,  $t=0.562$ ,  $p=0.574$ )와 외로움( $estimate=-0.011$ ,  $t=-0.116$ ,  $p=0.908$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신저는 편리하고 유연한 관계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4]. 하지만, 인간의 대면 상호작용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는 될 수 없다. 인간은 대면 상호작용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메신저가 인간의 대면 상호작용을 대체할 만큼 선호 대상은 아니다[4]. 따라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해도 대면 소통으로 전할 수 있는 감정과 느낌을 온전히 전달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인간의 마음은 상대방의 표정과 행동 그리고 말투가 모두 합쳐져서 표현된다. 하지만, 모바일 메신저에서는 단지 이모티콘, 글로 된 대화, 그리고 특수문자가만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비대면 소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메신저의 기능이 친구 차단 의도나 외로움을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 4. 결론

SNSs 상에서 친구삭제 버튼을 누르는 것은 충동적 결정일 수도 있고 상당한 속고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41]. Bevan et al.(2014)은 친구 삭제를 “의도적인 온라인 관계 종료의 한 형태”라고 정의했다. Zhu and Skoric(2021)은 친구 삭제를 이미 형성하고 있는 디지털 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즉, SNSs상에서 충동적으로 친구를 차단한 경우 차단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의도적으로 차단한 경우에는 차단을 취소할 가능성이 낮다. 그만큼 친구삭제는 온라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온라인 관계는 관계 형성-유지-단절의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복귀(refriending)라는 특수한 형태도 있기는 하지만 복귀는 결국 관계 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형성과 단절은 유지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주로 관심을 두었을 뿐 왜 그리고 어떻게 관계가 단절(차단)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다[42]. 연결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은 타인과의 연결을 형성하지 않기 위한 결정도 포함하기 때문에 연결 행위는 암묵적으로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다[42]. 따라서, 온라인 관계를 어떻게 끝낼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42]. 하지만, 디지털 관계 단절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42].

본 연구는 모바일 환경에서 메신저 사용자의 관계 단절 행위인 친구 차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했다. 분석 결과, 프라이버시 침해와 외로움이 친구 차단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외로움이 친구 차단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친구의 수가 적다고 볼 수 없다. 즉, 친구 수의 폭이 좁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친구의 수가 많아도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할 수 있다. 팀 프로젝트나 동아리, 그리고 학과 동기 등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을 수는 있으나 그 속에서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부족해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친구 관계에 있어서 규모보다는 관계의 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친구 차단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면, 친구차단 의도는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다고 느끼거나 자신을 알리고 싶은 대상이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관계의 질에 집중하고자 할 때 친구 차단 행위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위와 같은 실무적 함의 외에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관계라는 것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그리고 친구의 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업무와 관계의 경계가 직장인보다 명확하지 않다. 물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준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사적 관계의 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직장인처럼 관계의 유형이 다양한 경우 연구 결과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가족, 친구, 회사 동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References

- [1] Z. Papacharissi, A. M. Rubin, Predictors of Internet Us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Behavioral Research Methods*, (2000), Vol.44, No.2, pp.175-196.  
DOI: [https://doi.org/10.1207/s15506878jobem4402\\_2](https://doi.org/10.1207/s15506878jobem4402_2)
- [2] P. Sheld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willingness-to-Communicate and Students' Facebook Use, *Journal of Media Psychology*, (2008), Vol.20, No.2, pp.67-75.  
DOI: <https://doi.org/10.1027/1864-1105.20.2.67>
- [3] C. Sibona, S. Walczak, Unfriending on Facebook: Friend Request and Online/Offline Behavior Analysis, 44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 IEEE, pp.1-10, (2011)  
DOI: <https://doi.org/10.1109/HICSS.2011.467>
- [4] J. Birnholtz, Adopt, Adapt, Abandon: Understanding Why Some Young Adults Start, and Then Stop, Using Instant Messag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010), Vol.26, pp.1427-1433.  
DOI: <https://doi.org/10.1016/j.chb.2010.04.021>
- [5] M. Anderson, J. Jiang, Teens' Social Media Habits and Experiences, Pew Research Center, (2018)
- [6] M. Madden, Privacy Management on Social Media Sites, Pew Research Center, The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at Harvard University, (2012)
- [7] M. Madden, A. Lenhart, S. Cortesi, U. Gasser, M. Duggan, A. Smith, M. Beaton, Teens, Social Media, and Privacy, PewResearchCenter, The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at Harvard University, (2013)
- [8] C. Sibona, Unfriending on Facebook: Context Collapse and Unfriending Behaviors, 47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 IEEE, pp.1676-1685, (2014)  
DOI: <https://doi.org/10.1109/HICSS.2014.214>
- [9] C. Sibona, Facebook Fallout: The Emotional Response to Being Unfriended on Facebook, 47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 IEEE, pp.1705-1714, (2014)  
DOI: <https://doi.org/10.1109/HICSS.2014.218>
- [10] G. Neubaum, M. Cargnino, S. Winter, S. Dvir-Gvirzman, "You're Still Worth It": The Moral and Relational Context of Politically Motivated Unfriending Decisions in Online Networks, *PLoS ONE*, (2021), Vol.16, No.1, e0243049.  
DOI: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43049>
- [11] N. K. Malhotra, S. S. Kim, J. Agarwal, Internet Users'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IUIPC): The Construct, the Scale, and a Causal Mode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004), Vol.15, No.3, pp.311-416.  
DOI: <https://doi.org/10.1287/isre.1040.0032>
- [12] P. J. Auter, Portable Social Groups: Willingness to Communicat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Gratifications, and Cell Phone Use among Young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Mobile Communications*, (2007), Vol.5, No.2, pp.139-156.  
DOI: <https://doi.org/10.1504/IJMC.2007.011813>

- [13] M. Scealy, J. G. Phillips, R. Stevenson, Shyness and Anxiety as Predictors of Patterns of Internet Usage, *CyberPsychology & Behavior*, (2002), Vol.5, No.6, pp.507-515.  
DOI: <https://doi.org/10.1089/109493102321018141>
- [14] M. T. Wittenberg, H. T. Reis, Loneliness, Social Skills, and Social Percep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86), Vol.12, No.1, pp.121-130.  
DOI: <https://doi.org/10.1177/0146167286121012>
- [15] B. Jin, N. Park, Mobile Voice Communication and Loneliness: Cell Phone Use and the Social Skills Deficit Hypothesis, *New Media & Society*, (2012), Vol.15, No.7, pp.1094-1111.  
DOI: <https://doi.org/10.1177/1461444812466715>
- [16] L. Leung, Loneliness, Self-disclosure, and ICQ ("I Seek You") Use,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2002), Vol.5, No.3, pp.241-251.  
DOI: <https://doi.org/10.1089/109493102760147240>
- [17] H. Schiffrin, A. Edelman, M. Falkenstern, C. Stewart, The Associations among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Relationships, and Well-being,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2010), Vol.13, No.3, pp.299-306.  
DOI: <https://doi.org/10.1089/cyber.2009.0173>
- [18] I. Altman, D. A. Taylor, *Social penetration: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Holt, Rinehart & Winston, (1973)  
DOI: <https://doi.org/10.1089/109493102321018141>
- [19] V. Pornsakulvanich, P. Haridakis, A. M. Rubin, The Influence of Dispositions and Internet Motivation on Online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 Closenes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008), Vol.24, No.5, pp.2292-2310.  
DOI: <https://doi.org/10.1016/j.chb.2007.11.003>
- [20] R., Kraut, M. Patterson, V. Lundmark, S. Kiesler, T. Mukophadhyay, W. Scherlis,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1998), Vol.53, No.9, pp.1017-1031.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53.9.1017>
- [21] T. V. Barker, G. A. Buzzell, N. A. Fox, Approach, Avoidance, and Detection of Conflict in the Development of Behavioral Inhibition, *New Ideas in Psychology*, (2019), Vol.53, pp.2-12.  
DOI: <https://doi.org/10.1016/j.newideapsych.2018.07.001>
- [22] J. Peña, N. Brody, Intentions to hide and unfriend Facebook connections based on perceptions of sender attractiveness and status updat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014), Vol.31, pp.143-150.
- [23] J. L. Trew, Exploring the Roles of Approach and Avoidance in Depression: An Integrative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11), Vol.31, No.7, pp.1156-1168.  
DOI: <https://doi.org/10.1016/j.cpr.2011.07.007>
- [24] S. L. Gable, *Approach and Avoidance Motivation in Close Relationships, Social Relationships: Cognitive, Affective and Motivational Processes*, Psychology Press, (2008)
- [25] A. J. Elliot, S. L. Gable, R. R. Mapes, Approach and Avoidance Motivation in the Social Domai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06), Vol.32, No.3, pp.378-391.  
DOI: <https://doi.org/10.1177/0146167205282153>
- [26] B. K. Jakubiak, A. Debrot, J. Kim, E. A. Impett, Approach and Avoidance Motives for Touch Are Predicted by Attachment and Predict Daily Relationship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21), Vol.38, No.1, pp.256-278.  
DOI: <https://doi.org/10.1177/0265407520961178>
- [27] M. C. Howard, Applying the Approach/Avoidance Framework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Courage, Workplace Outcomes, and Well-being Outcomes,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2019), Vol.14, No.6, pp.734-748.  
DOI: <https://doi.org/10.1080/17439760.2018.1545043>

- [28] S. L. Gable, E. A. Impett, Approach and Avoidance Motives and Close Relationship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012), Vol.6, No.1, pp.95-108.  
DOI: <https://doi.org/10.1111/j.1751-9004.2011.00405.x>
- [29] S. L. Gable, Approach and Avoidance Social Motives and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2006), Vol.74, No.1, pp.175-222.  
DOI: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5.00373.x>
- [30] K. Verswijvel, W. Heirman, M. Walrave, K. Hardies, Understanding Adolescents' Unfriending on Facebook by Applying an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ur,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2019), Vol.38, No.8, pp.807-819.  
DOI: <https://doi.org/10.1080/0144929X.2018.1557255>
- [31] D. W. Russell,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996), Vol.66, No.1, pp.20-40.  
DOI: <https://doi.org/10.1080/0144929X.2018.1557255>
- [32] F. D. Davis, F. Davis,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1989), Vol.13, No.3, pp.319-340.  
DOI: <https://doi.org/10.2307/249008>
- [33] J. C. Anderson, D. W. Gerb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988), Vol.103, No.3, pp.411-423.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03.3.411>
- [34] M. S. Yim, A Study on Factor Analytical Methods and Procedures for PLS-SEM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Industrial Distribution & Business*, (2019), Vol.10, No.5, pp.7-20.  
DOI: <https://doi.org/10.13106/ijidb.2019.vol10.no5.7>
- [35] R. P. Bagozzi, Y. Yi,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988), Vol.16, pp.74-94.  
DOI: <https://doi.org/10.1007/BF02723327>
- [36] J. L. Bevan, P. C. Ang, J. B. Fearn, Being Unfriended on Facebook: An Application of Expectancy Violation Theor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014), Vol.33, pp.171-178.  
DOI: <https://doi.org/10.1016/j.chb.2014.01.029>
- [37] C. Fornell, D. F.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and Measurement Error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981), Vol.18, No.1, pp.39-50.  
DOI: <https://doi.org/10.1177/00222437810180010>
- [38] Q. Zhu, M. M. Skoric, Political Implications of Disconnection on Social Media: A Study of Politically Motivated Unfriending, *New Media & Society*, (2022), Vol.24, No.12, pp.2659-2679.  
DOI: <https://doi.org/10.1177/1461444821999994>
- [39] J. Henseler, C. M. Ringle, M. Sarstedt, A New Criterion for Assessing Discriminant Validity in Variance-ba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015), Vol.43, pp.115-135.
- [40] S. L. Ahire, S. Devaraj, An Empirical Comparison of Statistical Construct Valiation Approaches,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2001), Vol.48, No.3, pp.319-329.  
DOI: <https://doi.org/10.1109/17.946530>
- [41] T. Haugen, R. Säfvenbom, Y. Ommundsen, Sport Participation and Loneliness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Social Competence, *Current Psychology*, (2013), Vol.32, pp.203-216.  
DOI: <https://doi.org/10.1007/s12144-013-9174-5>
- [42] N. A. John, S. Dvir-Gvirsman, "I Don't Like You Any More": Facebook Unfriending by Israelis during the Israel-Gaza Conflict of 2014, *Journal of Communication*, (2015), Vol.65, No.6, pp.953-974.  
DOI: <https://doi.org/10.1111/jcom.12188>